

한국전 참전탑 헌화 연설

존경하는 첼렌크 참전협회장님,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고마움에 비하면 너무 늦게 이곳을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더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떠나면 이국땅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고 부상당했습니다. 터키 용사들의 용맹성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에게 전설처럼 살아 있으며, 우리는 여러분의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1위의 경제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공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위기에 내몰린 한국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한반도의 안정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도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세계의 평화를 지켜낸 진정한 용사들입니다.

참전용사 여러분,

터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정은 참으로 각별합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양국 응원단이 한 덩어리가 되어 치른 3·4위전은 말 그대로 축제의 한마당이었고, 이를 지켜본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양국 관계는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반세기 전 여러분이 뿌린 우정의 씨앗이 우리 두 나라 국민의 가슴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전 전몰용사들의 명복을 빌며, 참전용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